

'현우경' 이야기 (31)

금 코끼리를 가진 남자

어느 나라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매우 사랑스러웠다. 같은 날, 아이의 집 마구간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다. 코끼리는 온 몸이 금빛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를 신기하게 여겨 아이 이름을 상호라 지었다.

아이가 자라 걷게 되자, 코끼리도 아이를 따라 걸었다. 코끼리는 항상 상호 곁을 지키며 그를 따랐다. 어느 날 상호가 동네 아이들과 함께 모여 놀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말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나에게 온갖 보석이 박힌 의자를 선물해 주셨어."

다른 친구들도 그에 질세라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집에는 금 두꺼비가 셀 수 없이 많아."

"우리 집 곳간에는 외국에서 가져온 진

귀한 음식들이 넘쳐나."

그때 상호가 말했다.

"우리 집에는 온 몸이 금빛으로 된 코끼리가 있어. 그 코끼리는 내가 하는 행동은 뭐든지 따라해. 그리고 코끼리의 대소변도 모두 금덩어리야."

그 무리 중에는 이 나라 왕자인 아자타사 트루도 끼어 있었다. 왕자는 평소 육식 많고 심술궂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내가 임금이 되면 반드시 상호네 코끼리를 뺏고 말 것이다."

시간이 흘러, 왕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왕은 신하들에게 즉시 상호와 코끼리를 불러들이라고 명령했다. 상호는 코끼리와 함께 입궁하라는 전갈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상호의 아버지도 그런 아들이 걱정돼 말했다.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구나. 분명 코끼리는 빼앗고, 너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코끼리 상처를 치료해준 인연으로...



삼화·강병호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상호는 코끼리를 데리고 궁으로 향했다. 왕은 상호가 코끼리를 데리고 오자 매우 기뻐했다.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상호를 맞이했다.

"어서 오너라. 너희들을 환영한다."

상호는 왕에게 꿀어앉아 인사했다. 상호는 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그리고 코끼리는 여기에 두고 가거라."

상호는 알겠다고 답한 뒤, 코끼리를 두고 궁을 빠져나왔다. 성 문 앞을 지나치자 갑자기 코끼리가 상호 뒤에 나타났다. 코끼리는 상호가 궁을 나가자 땅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성문 밖으로 솟아 나왔다. 상호는

코끼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상호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위기를 잘 넘겼지만 언제 또 왕이 우리를 부를지 모른다. 이렇게 마음 풀이며 살 바에는 출가를 하는 편이 낫겠다.'

상호는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를 청했다. 부처님은 흔쾌히 출가를 허락하셨다. 상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를 깎고 비구가 됐다. 상호는 하루하루 열심히 수행 하며 지냈다. 하지만 같은 수행자들에게도 상호의 코끼리는 항상 화제였다. 다들 코끼리를 서로 구경하려고 어느 누구도 수행 하려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상호를 불러 말했다.

"코끼리 때문에 이 곳 분위기가 너무 번잡스러워 졌다. 너는 이제 그만 코끼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거라."

"오래전부터 코끼리를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 하거라. 나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네가 필요 없다."

상호는 부처님이 시킨 대로 코끼리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코끼리가 사라져 버렸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비구들이 신기하게 여겨 물었다.

"어째서 상호 비구는 금 코끼리를 얻은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주 먼 옛날 어느 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카사파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탑을 들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코끼리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곤 치료해 줬다. 이런 연유로 그 사람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으며, 항상 금 코끼리가 따라다니며 후회해 줬다. 그때 코끼리를 치료해 준 사람이 상호이니라. 상호는 자비심을 내 코끼리를 치료해 줬지 지금 복을 받고 사는 것이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33
-죽은 소에게 풀을 먹이다-
구성-김흥민

옛날에 한 현자가 있었는데 불법에 의지하고 공덕을 쌓아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아름답도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은 넉넉한 재물로 방탕하게 살았으며 불경 근견엔 가지도 않았다.

노세 노세 젊어 노세~

에휴- 자식농사를 저러 지어놓고 천상세계에 있는 것이 부끄럽구나!

부어라 마셔라

게다가 자식들은 제사를 자주 지냈는데

우리는 왜 맨날 제사를 지내요?

빠대있는 집안은 이렇게 하는거야- 너희들도 배워!

집승들을 잡아서 제삿상에 올렸다.

왜 자꾸 살생을 해서 제사를 지낸단말인가! 내려가야겠군...!

큰놈으로 잡아죽여!

배고프면 다 드시게 돼있어~

아버지는 생전에 고기를 안드셨는데...!

자아- 이제 우리가 먹자!

술 가져와!

제사나- 파티내? 쫓겨...!

소야 잠깐만 죽어줘라!

현자는 목동으로 변하여 내려갔다.

맛있다!

그리고 끌고가던 소를 잠깐 죽게하고 풀을 먹였는데 이를 지켜보던 자식들은 목동을 비웃었다.

한참 모자란 녀석일세! 죽은소가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이놈!

나쁜놈은 죽은 사람 뼈를 물어놓고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뭘 그러오?!

나쁜놈을 하는 것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내려왔다!

어?!

현자는 가르침을 남기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나는 천상세계에서 잘 살고있다! 너희도 나처럼 되려거든 부처님말씀 잘 지키고 똑바로 살아라!

아버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i.co.kr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릉농장: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내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쁜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이오칼라지붕공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